

2. 브라질 經濟 危機 論爭

- (現況) 최근 브라질 경제는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 選定되었다는 비판과 아울러 노조 總罷業과 화폐가치 과대평가 논쟁에 휩싸여 있음
- (原因) 브라질은 단기적이고 一貫되지 못한 通貨 政策 중심의 經濟 政策을 펴고 있다는 批判을 國內外的으로부터 받고 있음
- (示唆點) 급속한 經濟 危機 現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, 한국 기업의 長期的 直接投資에 앞서서 신중한 檢討가 要望됨

브라질 경제 위기
설 팽배

노조 총파업 및 레
알貨 가치 과대평
가가 그 주요인임

- (現況) 브라질은 최근 노조 총파업과 레알화 과대평가 논쟁에 휩싸이면서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

<노조 총파업>

- 6월 21일의 노조 파업은 브라질 노조총연맹(CGT)과 좌익계열의 노조연합(CUT), 우익인 노조연맹(FS)등 3대 노조세력이 연합하여 대규모 총파업을 선언함
- 現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비난과 임금인상, 농지개혁, 근로자 권익보장, 연금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이슈임

<레알貨 과대평가 논쟁>

- 클린턴 행정부의 前 남미담당 경제보좌관이었던 돈부시(Dornbusch)교수는 현재 브라질 레알貨가 달러貨에 대해 30 - 40%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내용의 글을 6월3일자 Wall Street Journal에 기고 하면서 현 브라질 경제 상황이 94년 멕시코 페소貨 위기와 비슷하다고 주장
- 그는 또한 과대평가된 화폐가치, 재정적자의 심화, 높은 실질 이자율 등이 국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역설함
- 그러나 브라질 중앙은행장인 구스타보 로올라(Gustavo Loyola)와 같은 브라질의 경제학자들

은 멕시코 페소 위기와 같은 금융 위기가 브라질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는 브라질 경제 변화의 심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경제 수치에 의존한 분석이라고 반박함

브라질의 현 경제 위기론은 장기적 경제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는 비판

○ (原因) 브라질 經濟 改革이 現 브라질 經濟의 不安定을 招來했다는 批判이 팽배함

- 1994년부터 카르도스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에 의해 수행된 브라질 경제개혁(The Real Plan)의 초점은 물가 상승 억제와 해외투자 유치임

<물가 상승 억제 정책>

- 월 50%이상이던 인플레이션을 월 1%내외로 안정시킴
- 그러나 현 경제정책이 너무 단기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이 제시됨
-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물가 상승과 소비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재 수요를 축소해서 실물경제의 과열을 막기보다는 긴축 통화정책과 같은 정책의 남용으로 명목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이자율과 레알貨 가치의 상승을 초래함

<해외투자 유치 정책>

- 정부는 해외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진국들로 부터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있는데, 96년 브라질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는 작년에 비해 2배인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나 이중 33%인 30억 달러는 브라질내 외국인 자회사에 대한 단기성 대출임
- 이러한 단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은 만일 페소화 위기와 같은 사태 발생시 급속한 레알貨 가치절하를 초래할 수 있음

○ (展望 및 示唆點) 現 브라질의 經濟 및 政治狀況

급속한 경제 위기
상황은 발생하지않
을 전망이나 장기
적 투자의 신중을
기해야함

은 멕시코와 같은 급작스런 危機狀況을 몰고오
지는 않을 展望이나 南美 經濟에 대한 브라질의
影響力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長期的 투자에
慎重을 기할 必要性이 대두됨

<展望>

- 現 경제정책이 너무 단기적인 통화 정책에 치우쳐
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분석해 보면
급작스런 위기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
 - 비교적 견실한 경제 성장: 1993년부터 96년 까지
의 평균 경제 성장율이 4.7%이며, 1996년 상반기
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2.5%임
 - 대규모 총 파업의 무산: 6월 21일에 있었던 노조
파업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규모 파업에 이르
지 못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
 - 높은 외환 보유고: 현 브라질 외환보유고가 560
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유출로
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

<課題>

- 현 브라질 경제는 시장 자유화 및 개방화로 인해
17%에 이르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정책
수립과
- 화폐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단기적인 통화 정책
보다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통화 정책을 통해 안정
적인 균형환을 유지가 필요

<示唆點>

- 한국기업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12월에 \$2천
만 정도이고 남미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
증가할 전망이다
- 따라서 장기적인 직접투자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(양 두 용)